종합 콘텐츠미디어그룹 'NEW' 2019년 라인업 공개

'언더독'부터 '생일'·'가장 보통의 연애'까지

종합 콘텐츠미디어그룹 NEW가 2019년 라인업을 공개했다.

◇ 생일 · 나의 특별한 형제 · 힘을 내요, 미스터 리

'생일'은 소중한 사람이 떠난 뒤, 남겨진 이들이 나누는 뜨거운 진심과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 이종언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맡았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설경구와 전도연의 폭발적 열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첫 장편 연출을 맡은 이종언 감독은 "지우기 어려운 상처를 가진 모든 이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나의 특별한 형제'는 머리 좀 쓰는 형 세하(신하균)와 몸 좀 쓰는 동생 동구(이광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20년 동안 한 몸처럼 살아온 두 남자의 우정을 그린 휴먼 코미디다. 훈훈한 촬영 분위기로 배우들이 크랭크업을 아쉬워했다는 후문이 전해져 작품이 전할 따뜻하고 유쾌한 에너지를 짐작하게 한다.

2019년, 서로에게 가장 특별한 두 사람이 전하는 가장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한 육상효 감독은 "배우들의 탁월한 연기가 돋보이는 영화다. 신하균의 정확하고 에너지 넘치는 연기, 이광수의 순수한 디테일 연기를 기대해달라"고 개봉을 앞둔 소감을 밝혔다.

'힘을 내요, 미스터 리'는 완벽한 외모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반전 매력남 철수(차승원)와 병원에서 탈출한 맹랑소녀 샛별(엄채영)이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변신의 귀재 차승원과 '럭키'로 코미디 영화의 흥행 역사를 새롭게 쓴 이계벽 감독이 2019년 대한민국 관객들의 웃음을 책임진다.

여기에 레전드 콤비 탄생을 예고하는 천재 아역 엄채영과 박해준, 김혜옥, 안길강, 전혜빈, 류한비, 조한철, 성지루까지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할 든든한 조력자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이계벽 감독은 "차승원 배우의 코미디 장르 복귀와 놀라운 변신을 기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가장 보통의 연애 · 시동

2019년 설렘 지수를 높일 '가장 보통의 연애'는 사랑에 상처받아 마음이 고장 난 두 남녀의 문제 많은 연애담을 그린 영화로 로맨틱 코미디에 목말라 있는 한국 영화계에 단비 같은 작품이다. 로코퀸 공효진과 심쿵 유발 김래원이 오랜만에 선보이는 장르로 함께 출연한 드라마 MBC '눈사람'(2003) 이후 더욱 성숙해진 감정 연기를 보여줄 것이다.

사랑하고 있고, 사랑했던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 연애의 '끝판왕' 탄생을 예고한다. '구경' '술술' 등의 단편영화로 두각을 나타내고 상업 장편영화 데뷔를 앞둔 김한결 감독은 "사랑에 상처받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유쾌한 현실남녀 로맨스로 찾아뵙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평점 9.8점을 기록한 화제의 흥행 웹툰을 영화화하는 '시동'은 평범한 소년 택일(박정민)의 통쾌하게 요동치는 일상을 그려낸다. 무한매력 박정민과 올 한해 여러 작품에서 존재감을 선보인 대체불가 마동석이 함께해 유쾌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전작 '글로리데이'에서 스무 살 청춘들의 뜨거움을 담아냈던 최정열 감독은 "이 세상에 결코 시시한 삶이란 없다. 서툴지만 거침없는 캐릭터들의 멋진 질주를 그려내고 싶다"고 포부를 비쳤다.

◇ 콜 · 비스트(가제)

서로 다른 시간대의 두 여자가 한 통의 전화로 연결되며 벌어지는 이야기인 '콜'은 단편영화 '몸값'으로 전 세계 영화제를 휩쓸며 파란을 일으킨 이충현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자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며 아시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박신혜, 그리고 '버닝' 이후 첫 행보로 주목받고 있는 신예 전종서가 함께하는 힙한 조합이 돋보이는 영화다.

올해 주도적인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화들이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콜' 역시 남다른 스릴러의 탄생을 기대케 한다. 이충현 감독은 "각양각색의 캐릭터가 만들어내는 시너지와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영화"라고 관람 포인트를 전했다.

활발한 연기활동으로 대세 흥행 배우의 존재감을 공고히 다진 이성민과 장르 불문 만능 배우 유재명이 지금껏 본적 없는 카리스마 대결을 펼친다. '비스트'(가제)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살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팽팽하게 대립하는 두 형사의 격돌을 그린 범죄 누아르 영화다.

다양한 작품을 통해 스펙트럼 넓은 연기력을 선보여 온 연기 괴물들의 맞대결은 2019년을 대표할 범죄 누아르 영화의 탄생을 예고한다. '방황하는 칼날' 이후 오랜만에 돌아온 이정호 감독은 "최고의 배우들, 스태프들과 함께 작업하게 돼 무척 설레고 기대가 된다. 이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좋은 작품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촬영에 임하고 있는 자세를 밝혔다.

◇ 애니메이션 언더독부터 안녕, 티라노: 영원히, 함께 등

2019년 NEW 영화사업부의 애니메이션 라인업은 한국 애니메이션 흥행 주역들의 신작 '언더독'부터 전 세대, 온 가족이 만족할 소재의 작품들로 구성돼 있다.

새해 유쾌한 웃음과 가슴 벅찬 감동을 선사할 영화 '언더독'은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고흥행기록을 세운 '마당을 나온 암탉' 오성윤, 이춘백 감독의 7년 만의 차기작으로 1월 16일 관객들과 만난다.

하루아침에 운명이 바뀐 강아지 뭉치와 거리의 견공들이 진정한 자유를 찾아 떠나는 모험을 그려내며 일찍이 제5회 실크로드 국제영화제 베스트 애니메이션 수상, 제2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작 최단 시간 매진, 전 세계 69개국 선판매 등 뜨거운 행보를 이어왔다.

여기에 대세 배우 도경수, 박소담, 박철민이 싱크로율 100%의 목소리 연기에 참여해 새해 첫 웃음과 감동으로 '해피투게더' 신드롬을 일으킬 예정이다. 개봉을 앞두고 오성윤 감독은 '많은 애니메이션이 어른들도 볼 수 있는 영화인 점을 강조하지만, '언더독'은 삶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어린이도' 볼 수 있는 진정한 가족 영화다"라며 폭넓은 관객층을 만족시킬 작품의 매력을 강조했다.

'안녕, 티라노: 영원히, 함께'는 비밀을 간직한 티라노와 희망을 간직한 프논이 천국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담은 애니메이션으로 '아톰' '빌립의 왕자 레오' 등을 선보인 전설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사 데즈카 프로덕션과 국내에 '너의 이름은'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를 선보인 미디어캐슬이 공동 제작하고, '명탐정 코난'으로 작품성과 흥행성 모두를 입증받은 마스터 시즈노 코분이 감독을 맡아 높은 완성도를 자랑한다.

국내에서는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월드 프리미어 섹션에 소개돼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은 세계적인 음악감독 사카모토 류이치가 함께해 공룡들의 여정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어드벤처의 스케일과 촉촉한 감성을 모두 잡으며 공룡 소재 애니메이션의 신(新) 영역을 개척할지 주목된다.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콘텐츠 전문 기업 초이락컨텐츠팩토리의 대표 시리즈들이 극장판으로 돌아온다. '극장판 공룡메카드: 타이니소어의 섬'은 위기에 처한 신비로운 섬 타이니소어의 섬을 구하기 위한 용찬과 공룡 친구들의 짜릿한 모험담을 그린다.

특히 '극장판 공룡메카드: 타이니소어의 섬'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모두 FULL 3D로 제작되어, 더욱 화려하고 박진감 넘치는 액션과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 시선을 사로잡는 커다란 거대 공룡들의 모습은 남다른 스케일의 액션을 선사할 것을 예고한다.

'극장판 헬로카봇: 옴파로스섬의 비밀'는 2018년 여름방학 극장가를 장악했던 '극장판 헬로카봇: 백악기 시대'의 흥행 배턴을 이어받는다. 2018년 애니메이션 최고 오프닝 스코어 경신, 국산 애니메이션 최단기간 60만 관객 달성 신기록 등 역대급 행보를 이어온 '극장판 헬로카봇' 시리즈가 또 한 번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1% 굴욕' KBS, 박신양 고현정 유준상으로 명예회복할까

KBS가 신작 두 편으로 자존심 회복에 나선다.

2019년 1월 둘째주 KBS 2TV는 새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2: 죄와 벌'(이하 조들호2/연출 한상우)와 새 수목드라마 '왜그래 풍상씨'(극본 문영남/연출 진형욱)를 연달아 선보인다.

'동네변호사 조들호2'는 1월7일, '왜그래 풍상씨'는 1월9일 각각 첫 방송을 앞두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먼저 '조들호2'는 소시민을 대변했던 조들호(박신양 분)가 동네 변호사의 울타리를 넘어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악 이자경(고현정 분)과 치열하게 맞서며 우리 삶을 깊숙이 관통하는 정의의 가치를 담아낼 드라마로, 지난 2016년 5월 이후 우여곡절 끝에 시즌2로 다시 시청자들을 찾아오게 됐다.

시즌1 당시 17.3%(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시청률로 종영, 많은 사랑을 받았던 '조들호2'는 믿고 보는 박신양에 30년만에 KBS에 출연하는 고현정까지 더해 벌써부터 묵직한 무게감을 자랑한다.

특히 고현정이 지독한 악녀로 변신한 것으로 알려져 박신양과 고현정의 미친 연기 대결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그런가하면, '소문난 칠공주' '왕가네 식구들' 문영남 작가의 복귀작인 '왜그래 풍상씨'는 동생 바보로 살아온 중년남자 풍상씨(유준상 분)와 등골 브레이커 동생들의 아드레날린 솟구치는 일상과 사건 사고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볼 드라마다.

유준상, 이시영, 오지호, 전혜빈 등이 출연하며, '막장 전문'이라는 꼬리표를 늘 달고 다니지만 개성 넘치고 감칠맛 나는 스토리와 빠른 전개로 KBS 주말극 불패 신화를 이어온 문영남 작가의 새 작품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뿐만 아니라 '왜그래 풍상씨'는 최근 로맨스 코미디, 법정 추리극 등 장르극이 대세로 떠오른 가운데 오랜만에 등장한 가족극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사실상 주말극 시간대로 갔어야 할 드라마지만 평일 황금시간대 파격 편성, 집나간 중장년층 시청자들 마저 잡겠다는 각오다.

이는 실추한 드라마 명가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KBS의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제대로 칼 갈고 있는 KBS 새 드라마들이 기대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전작들과 확 다른 분위기 때문이다.

'조들호2' 전작인 '펜트하우스'는 박세완, 장동윤 등 신예들을 대거 내세우는 초강수를 뒀지만 평균 2% 대 시청률을 벗어나지 못했다.

심지어 자체최저시청률 1.7%를 기록하기도. 결국 '펜트하우스'는 지난 12월25일 2.5% 시청률을 기록하며 종영했다.

강지환 백진희를 내세운 '죽어도 좋아' 역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왜그래 풍상씨' 전작인 '죽어도 좋아'는 4.0% 시청률로 출발했지만 이를 유지하지 못하고 2%대로 하락, 지난 12월27일 2.7% 시청률로 막을 내렸다.

방영 중 1.9%까지 시청률이 하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들호2'와 '왜그래 풍상씨'는 캐스팅과 장르, 시청 연령대 등 여러 부문에서 분위기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KBS는 본격 첫 방송 전 스페셜 방송까지 편성, 첫 방송을 한 주씩 미루며 새해부터 제대로 칼을 갈고 있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KBS 드라마가 '왜그래 풍상씨'와 '조들호2'로 땅에 떨어진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늘의 운세 2019년 1월 3일 목요일 (음력 11월 28일)

▶쥐띠 부부간에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해도 가정을 포기할 수 없지 않은가. 자식이 울고 있으니 어서 화합하라. 현재를 생각 말고 미래를 바라보자. 섣부른 판단으로 평생 후회할 일을 만들어서야. ㄱ, ㅊ, ㅇ 성씨는 서쪽 사람을 경계하라.

▶소띠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돕는다.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도와줄 귀인도 생기는 법. 자식이라는 장벽 탓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 한없이 울고 울어도 답답할 뿐이다. 7, 9, 11월생은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하라. 검은색이 길.

▶호랑이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친지의 조언을 들어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기왕에 벌여놓은 일은 시간이 해결해주니 서두르지 말라. 차라리 자중하면서 좀 더 성숙해지는 것이 낫다. 1, 2, 3월생 파란색이 길. 북쪽에서 행운이 온다.

▶토끼띠 지금은 미래를 준비할 시기다. 열심히 노력하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 늦은 시간 음주를 삼가라. 취중 유혹에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다. ㅁ, ㅊ, ㅇ 성씨는 사업 자금 융통이 원활히 이뤄지겠다. 매매 건이 있으면 서두르지 말라.

▶용띠 희망을 버리지 말고 현실에 만족하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다. 긴 세월 동안 마음을 주고 뜻을 같이했어도 돌아서면 남남이다. 금전으로 인해 부부 갈등이 우려된다. 함께 충분히 의논하면 길이 열린다.

▶뱀띠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어야 대인 관계에서나, 가정에서나 존경받을 수 있다. 중심이 흔들리면 가정 불화는 물론 자녀 교육에도 지장이 생긴다. 3, 7, 9월생은 가족과 내 건강을 확인해 보라. 자가 운전자는 시비를 가급적 피하자.

▶말띠 두 사람이 만나 사랑하기로 하고 살아가도 시련과 고통이 따르고 시비가 엇갈리면서 원숙해지는 것이 인생이다. 가출한 사람은 자녀를 생각해 돌아가라. ㅈ, ㅊ, ㅇ 성씨는 애정 문제로 구설에 오르니 내 것이 아니면 정리하라.

▶양띠 사람은 한 번 인연을 맺기도 힘들지만 헤어지기도 힘들어 갈등이 크겠다. 하지만 서로 합의해 결정하는 것이 자녀를 위해서도 좋겠다. 2, 4, 8월생은 가정이 안정돼야 하는 일이 순조롭게 풀릴 듯. 밝은색으로 단장할 것.

▶원숭이띠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하자. 1, 7, 11월생은 친한 친구와 금전 문제로 신의가 깨질 우려가 있다. 신중히 처신하라. 가정에도 신경 쓰자. 이성 문제로 관재수 따르니 가정이 위태롭다.

▶닭띠 잊을 것은 빨리 잊고 새 출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떠나간 사람에게 연연하다 보면 매사 혼동할 수밖에 없음을 알라. 1, 4, 8월생 ㄱ, ㄴ, ㅇ 성씨는 가정에 신경 쓰라.

▶개띠 모든 힘을 한곳으로 모아 내실을 기하라. 가족에게 많이 신경 써야 할 때. 특히 남자는 아내 건강도 챙겨줄 정도로 배려해야겠다. 5, 9, 12월생은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지는 손길을 상대가 원하고 있음을 알라.

▶돼지띠 마음이 흔들리면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과욕을 버리고 차분하게 처신하라. 나도 나 자신을 알 수 없는데 남을 믿는다는 것은 큰 모험이다. 하지만 남을 믿는 만큼 덕이 있을 듯. 북, 동쪽 사람이 도움을 줄 테니 기회를 잡으라.